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168 호

2017 년 11 월 2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지속가능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노력' 조찬 포럼 개최 안내 (11/17)
2. 한독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Fair Player Club 반부패 세미나 개최 안내 (11/21)
3.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 반부패 서약 안내

■ 본부 소식

1.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혁신 사례 -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더커브(The Curve)'
2. [UNGC 사무총장 기고]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3. UNGC 캐나다협회, 제 2 회 SDGs 시상식 수상기업 발표

■ SDGs 소식

1. [SDGs 12.6] UNGC-GRI, 기업을 위한 'SDGs 공시 안내서' 발간

■ 회원사 뉴스

1. 서울시복지재단 근로자이사 임명
2. 신한은행, 글로벌 사회공헌 지침서 'CSR GUIDE for GLOBAL SHINHAN' 발간
3. 롯데제과 '나눔국민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4. 컨선월드와이드, 2017 세계 기아 리포트 행사 개최

■ CSR 뉴스

1. [기 고] 나이키·리바이스·게스,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다
2. 건설기술 용역 심사에도 '사회적 책임' 평가한다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일자리창출·지역공헌도 중심으로 재편
4. 공정위, 미리 등록된 대기업·로펌 직원만 접촉 허용... '전관예우 근절' 준칙 도입
5. 한국 12개 기업, CDP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평가 'Leadership A' 획득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17년 연회비 납부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지속가능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노력' 조찬 포럼 개최 안내(11/17)



전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가 몇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림픽은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등 사회 전반에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며, 세계 평화와 인류의 존엄성 실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메가 스포츠 행사의 준비와 개최,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사회적, 윤리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UNGC 10대 원칙, GRI G4, ISO 26000의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을 준수하고,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파트너들이 경제·사회·환경을 고려하도록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적용하는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UNGC 회원사이자 대회 공식 후원사인 기업들과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공동노력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행사를 구현하기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비전과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의미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공유하는 본 조찬 포럼에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행사 개요
일시: 2017년 11월 17일 (금) 오전 7:00 - 8:30
장소: 더 플라자 호텔, 메이플홀 (4F)
주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참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원사 CEO 및 실무진
 (회원사: 무료 / 비회원사: 참가비 50,000원)
 * 선착순 마감

시간	프로그램
07:00-07:30 30'	조찬
07:30-07:35 5'	환영사 -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07:35-08:05 30'	"지속가능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노력" - 이희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08:05-08:25 20'	평창 지속가능성 파트너 사례 발표 - KT 이선주 상무 (10') - 한국 코카콜라 구남주 이사 (10')
08:25-08:30 5'	지속가능한 메가 스포츠 공동노력 캠페인 소개

연사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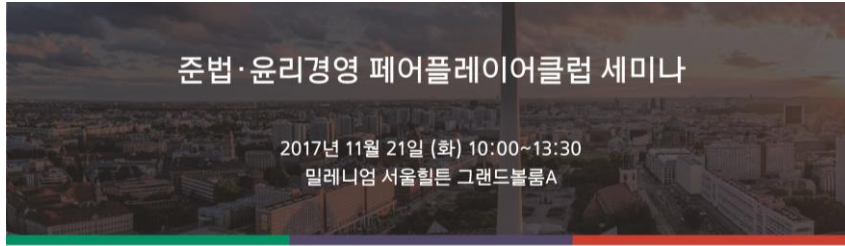


이희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 현 산업자원부 장관
- 현 한국무역협회 회장
- 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현 STX에너지·STX중공업 총괄 회장
- 현 사무디아라비아 경안들이지즈대 국제자문위원
- 현 LG상사 대표이사 부회장(CEO), 고문
- 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조찬 포럼 신청 바로가기\]](#)

2. 한독상공회의소와 함께하는 Fair Player Club 반부패 세미나 개최 안내 (11/21)



한독상공회의소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오는 11월 21일 (화) <준법·윤리경영 페어플레이어클럽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공동 개최합니다. 외국계 기업 및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독일의 반부패 법과 제도를 소개하고, 반부패 대응을 위한 글로벌 표준 및 기업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기업의 부패 리스크 방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본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페어플레이어클럽(Fair Player Club)은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의 전 세계 24개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 중 유일한 한국 프로젝트로 업종별,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살린 현장 중심의 준법·윤리경영 교육, 연구, 자가진단(Self Assessment) 등 다양한 인식제고 확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행사 개요
 일시: 2017년 11월 21일 (화) 10:00~13:30
 장소: 밀레니엄 서울힐튼 그랜드볼룸A
 주최: 한독상공회의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주관: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후원: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9:30~10:00	30' 등록
	10:00~10:10	30' 개회사 - Barbara Zollmann, 한독상공회의소 대표 - 김중갑, (주)지멘스 회장 & 한독상공회의소 이사장 -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10:10~10:40	30' 독일의 반부패 법과 제도: 민간부문의 적용과 시사점 - Joern Elbracht, 김앤장 변호사
	10:40~11:10	30' 기업의 반부패 대응: ISO37001 과 부패 리스크 관리 - 한성욱 이사, 딜로이트
	11:10~12:10	60' 준법윤리경영의 비즈니스 기회 (기업 사례 발표) - 지멘스코리아 - 칼자이스 코리아 -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TBC)
	12:10~12:30	20' 페어플레이어클럽 소개 및 반부패 가이드라인 안내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12:30~13:30	60' 오찬



[세미나 신청 바로가기]

※ 본 행사는 독일 관계 기업 외에도 참석 가능하오니 유럽 반부패법과 기업사예에 대한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유럽진출기업 및 국내 공급/협력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UNGC 한국협회는 오는 12월 5일(화) 주한 EU 대표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CK)와 FPC EU 세미나를 공동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3. 페어플레이클럽(Fair Player Club) 반부패 서약 안내



유엔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준법·윤리경영 민간협력 프로젝트인 페어플레이클럽(Fair Player Club)에서는 Fair Play 반부패 서약을 통해 한국의 산업별 준법·윤리 경영 증진 활동에 동참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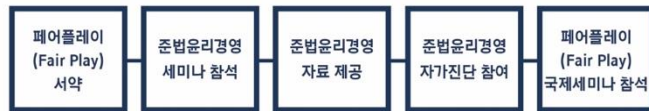
페어플레이클럽은 세계은행과 독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Siemens Integrity Initiative)의 24개 글로벌 반부패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15년부터 3년간 업종별, 지역별, 국가별 특성을 살린 현장 중심의 준법·윤리 경영 교육, 연구 및 다양한 인식제고 확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는 전자정보통신, 자동차, 기계, 철도, 해외건설, 의료산업 등의 산업협회와 협력하여 산업별 리스크 예방 및 준법·윤리경영 역량강화를 지원하였으며, 2차년도는 7대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및 지역상공회의소와의 민간협력을 통해 지방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반부패와 준법·윤리경영 중요성을 전파했습니다.

올해는 유럽·아시아 대사관 및 상공회의소와 함께 통해 해외 진출 한국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시스템 확립과 공급망 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FPC 참여 기업 혜택 및 기대효과

- 반부패 관련 국제 기준(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영국 뇌물수수법 등) 소개 및 국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대비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민간협력을 통한 준법·윤리경영분야 교류 확대
-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선포식/세미나 참석 후 수요증 제공, 해당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노력에 대한 국내외 홍보
- 준법·윤리경영 자가진단 툴 및 관련 자료 제공



주최: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주관: GCEF Glob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Forum
사단법인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페어플레이클럽 사무국 | www.fairplayerclub.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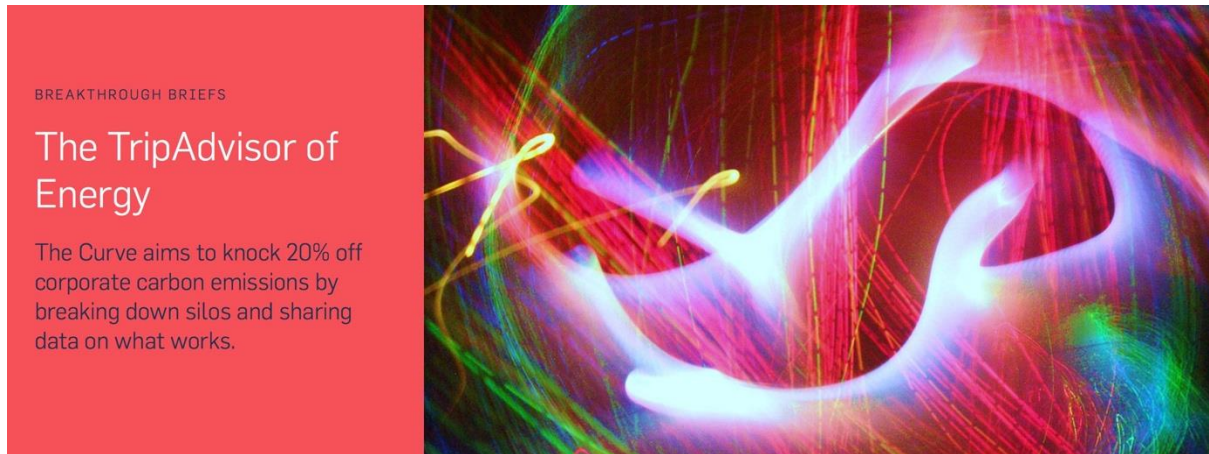
유엔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객 글 주임 연구원 / 소 연 연구원
 T. 02-749-2182/2149 | F. 02-749-2148 | E. fpc@globalcompact.kr

사단법인 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오지효 대리 / 김아름 연구원
 T. 02-714-5964 | F. 02-749-2148 | E. infogcef@gmail.com

[\[페어플레이 서약서 다운로드\]](#)

본부 소식

1.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혁신 사례 -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더커브(The Curve)'



“더커브(The Curve)는 정보 격차를 제거하고 업무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기업 탄소 배출을 20%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프로젝트 리더:** 짐 우즈(Jim Woods), 더커브(The Curve) 최고경영자
- **프로젝트 지역:** 영국 런던

Zipcar의 창립자 [로빈 체이스\(Robin Chase\)](#)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커브\(The Curve\)](#)는 플랫폼의 힘을 믿고 있는 창립자의 신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더크라우드\(The Crowd; 더커브의 지속가능성 싱크탱크\)](#)의 CEO [짐 우즈\(Jim Woods\)](#)는 그가 ‘에너지 관리계의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를 2014년에 개발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짐 우즈 대표는 홈스테이 업계의 에어비엔비(Airbnb), 운송업계의 우버(Uber) 그리고 여행업계의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처럼 더커브(The Curve)가 에너지업계에 혁신을 가져오기를 고대합니다. 즉, 관련 목록 및 다른 이용자들의 수요 분석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실행 가능한 에너지 투자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는 40퍼센트가 넘는 에너지 프로젝트들이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저평가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프로젝트는 주로 탄소 저감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만 투자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가치가 10억 파운드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의 시대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짐 우즈(Jim Woods) 대표는 신뢰성 있는 정보의 부재를 에너지 투자 시장의 실패 원인으로 보고, 에너지기업 경영진과 기업 재정부서, 공공기관들이 탄소 및 에너지 투자 데이터와 각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P2P(Peer-to-peer) 데이터베이스 [더커브\(The Curve\)](#)를 설립했습니다.

연간 5만 파운드 이상의 에너지 예산을 갖고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커브의 첫 번째 도전은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데이터를 익명 처리된 기업들이 자사의 데이터를 공유할지 여부였습니다. 더커브의 플랫폼은 기술정보(조명, 제어, 풍력, 운송 등), 투자량, 프로젝트 등급 및 주요 공급사 등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합니다. 해당 정보는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조명부터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각종 에너지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있는 100개 기업의 참여로 해당 이슈는 대부분 극복되었습니다. 더커브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기업으로는 비티그룹(BT), 히드로공항(Heathrow Airport), 재규어 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더크라운에스테이트(The Crown Estate), 토요타(Toyota), 유니레버(Unilever)와 월그린(Walgreens Boots Alliance)이 있습니다.

오늘날 더커브는 이용자 참여로 구성된 플랫폼 중 전 산업에 걸쳐 가장 많은 에너지 프로젝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짐 우즈 대표는 더커브가 기업 탄소 배출량을 20% 감축 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더커브의 다음 도전은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에 인공지능이 활용될 것이고, 더 나아가 사용자들의 코멘트가 의사 결정에 이용될 것입니다. 우즈 대표는 인공지능이 더커브의 최종 목표이며, 기업 에너지 프로그램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기업이 똑같은 답을 생각하고, 혁신 없이 기존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협업을 기반으로 혁신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약 기업들이 새로운 변화에 동참할 준비가 됐다면, 탄소, 물 및 폐기물 같은 자원이용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가 불러올 잠재력은 무궁무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커브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한다면 우리는 매우 행복할 겁니다.”

더커브 플랫폼은 현재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소개된 회사 및 사례는 토론과 아이디어 제공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선별한 것으로,
개별적인 회사나 개인적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돌파구를 만드는 혁신 프로젝트 영상 보기](#)
- [더커브\(The Curve\) 플랫폼 바로가기](#)

2. [UNGC 사무총장 기고]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동 기사는 리세 킹고(Lise King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이 2017년 10월 6일 [허프포스트](#)지에 기재한 글입니다.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는 전 세계 정부, 기업, 시민사회 및 학계의 리더들이 어떻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중요하고 고무적인 자리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30년까지 17개의 글로벌 목표를 실행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첫 CEO 라운드테이블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의 CEO 25명을 초청해 유엔정기총회 주간을 시작했습니다. 동 CEO 라운드테이블은 기업들이 글로벌 목표를 채택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글로벌 목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동 행사에서 나온 분명한 메시지는 기후변화와 불평등 해결의 진행 상태를 추적하기 위한 지표가 결핍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두가지가 우리 사회에 주요한 도전과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한 노력

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남은 날은 기껏해야 1,000일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불평등은 위험한 분화, 갈등 및 사회적 불안 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으로 극빈곤층 혹은 빈곤층의 오직 3분의 1만이 직업을 갖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여전히 하루 소득 2달러 이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불평등의 진전 역시 여전히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여성들은 계속해서 성평등을 향한 중대한 경제적, 사회적 및 법적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공식적인 경제에 참여한다면, 전 세계 GDP에 28조 달러의 가치가 더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세계 18억 젊은이들의 30퍼센트는 무직 상태며 학교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취학 연령의 어린이들 중 5천 7백만 명 이상이 여전히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이 50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공평하고 공정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롭게 발간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2017 UNGC 이행보고서\(Progress Report: Business Solutions to Sustainable Development\)'](#)에 따르면, UNGC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중 75퍼센트 이상은 이미 글로벌 목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 69퍼센트의 기업들에서는, CEO들이 장기적 지속가능성 성장을 이끄는 혁신 아젠다로서 글로벌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기업들이 정확히 어떻게 글로벌 목표를 그들의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자아냅니다. '2017 UNGC 이행보고서'는 또한 오직 소수의 기업들만이 실제로 우리의 10대 원칙 및 글로벌 목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일의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찰에 기반하여, UNGC는 유엔정기총회 기간 중 개최된 [유엔글로벌콤팩트 리더스 서밋](#)에서 매우 중요한 일련의 자료들을 런칭했습니다. 먼저, ['SDG 리더십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Business Leadership on the SDGs\)'](#)은 책임 있는 비즈니스의 토대인 10대 원칙에 기반해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그들의 비즈니스 전략 개발에 내재할 지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 청사진은 글로벌 목표, 기업 성격 및 각각의 목표가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차원을 망라하여 상호연계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UNGC는 GRI와 함께 [‘SDGs에 대한 이행성과 보고하기: 목표 및 세부목표 분석\(Business Reporting on the SDGs: An Analysis of the Goals and Targets\)’](#)을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자매지인 ‘우선순위 선정 및 이행 성과 공개에 대한 지침서(A Practical Guide to Defining Priorities and Reporting)’도 내년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목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고/공시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행과 측정, 보고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글로벌 목표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그들의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금융 부문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 분석가 및 투자자들은 이러한 보고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SDGs 이행을 위한 혁신적 재원 마련은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주요 파트너들과 함께 주최했던 [유엔 민간부문 포럼\(UN Private Sector Forum\)](#)에서 최우선 과제로 다뤄졌습니다. 유엔 민간부문 포럼은 유엔 사무총장이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안토니오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처음으로 주최한 포럼입니다. 올해는 ‘2030 의제를 위한 재원 마련: 번영을 열다(Financing the 2030 Agenda: Unlocking Prosperity)’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2030년까지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5-7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부문은 가장 필요한 곳에 민간 자금을 전달하는 혁신적인 금융 상품 채널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부문은 글로벌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전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투자 공동체의 중대한 역할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만약 금융 부문이 이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은 5,000일의 경주에서 지고 말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금융 부문은 SDG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핼코(Pimco)와 함께 담대한 행동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이번 유엔 민간부문 포럼에서는 2030 의제 재원 마련을 위해 [25개사가 참여한 CEO 지지 서약](#)이 있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도약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범위와 규모의 행동에 부응하고자 한다면 단기성과주의 및 기업들의 '관행적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결국에는, 확실히, 금융 부문의 역할은 이익과 수익률을 최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긍정적인 개발도 촉진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뒤, 사무총장은 올해 포럼에서 나온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글로벌 목표를 위한 혁신적인 자금 조달에 대한 행사를 주최할 것입니다. 이는 금융 부문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진지하게 책임있는 비즈니스를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를 상징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이미 우리의 [SDG를 위한 혁신적인 자금 조달\(Innovative Financing for the SDGs\)](#) 액션 플랫폼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매 이니셔티브, 사회책임투자원칙, 그리고 유엔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 뿐만 아니라 투자기관, 금융사 등 다양한 부문의 기업들과 함께, 우리는 글로벌 목표를 위한 자원 마련의 주안점에 대해 재고하기 위해 공유된 미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행동을 일으켜봅시다.

- [원문보기](#)

3. UNGC 캐나다협회, 제 2 회 SDGs 시상식 수상기업 발표



(2017년 9월 29일, 토론토) – 지난 9월 28일, UNGC 캐나다협회가 주최한 제2회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시상식에서 SDG 17개 목표의 달성에 뛰어난 업적을 이룬 여섯 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본 시상식에서는 엘리자베스 도즈웰(Elizabeth Dowdeswell) 온타리오주 총독이 개회사와 축사를 남겼습니다.

시상은 셀리나 시저 사반스(Celina Caesar-Chavannes) 캐나다 국제개발부 및 프랑코포니 정무 차관에 의해 중소기업 부문과 대기업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부문에는 [토론토 대학의 MScSM 프로그램](#), [오퍼레이션 아이사이트\(Operation Eyesight\)](#), [인바이로-스튜어드\(Enviro-Stewards\)](#)가 수상하였으며, 대기업 부문에는 [프론테라 에너지\(Frontera Energy\)](#), [바스프\(BASF\)](#), [캘거리 대학교\(University of Calgary\)](#)가 수상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각 수상기업은 기업 대표 및 캐나다 정부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자사가 SDGs 달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활동과 영향력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시상식에는 UNGC 캐나다협회와 [캐나다 총무부\(Global Affairs Canada, GAC\)](#), 자원개발회사 [테크리소시즈\(Teck Resources Limited, Teck\)](#), [뉴트리션 인터내셔널\(Nutrition International\)](#)이 자리해 아동보건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을 발표했습니다. 4개 기관은 [아동 건강을 위한 아연연맹\(Zinc Alliance for Child Health, ZACH\)](#)을 구축하여 세네갈, 에티오피아, 케냐, 방글라데시에 사는 아동 수백만 명의 아연 보충을 도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주제 하에 [프론테라 에너지\(Frontera Energy\)](#), [캐나다 총무부\(Global Affairs Canada\)](#), [아그리움\(Agrium\)](#)의 기업 실무자들이 유익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이루는데 필요한 파트너십 기반에 대한 혜안을 나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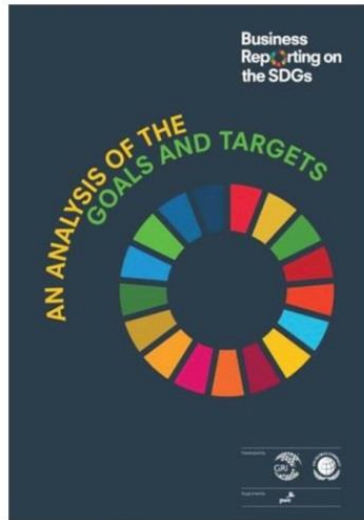
2017년 SDG 시상식(SDG Awards 2017)

[UNGC 캐나다협회](#)가 매년 주관하는 [SDG 시상식](#)은 민간부문의 SDG 인식 및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캐나다의 SDGs 달성에 기여한 기업 사례도 소개합니다. UNGC 캐나다협회는 동 시상식을 통하여 SDGs 이행에 소극적인 기업/기관들에게 SDGs에 대한 관심을 불어넣고, 관련 이니셔티브 및 모범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테크리소시즈\(Teck Resources\)](#)가 호스트 스폰서로 참여하고, [프론테라 에너지\(Frontera Energy\)](#)와 [킨로스골드\(Kinross Gold\)](#)가 브론즈 스폰서, [베이커&매킨지\(Baker McKenzie\)](#)가 런치 스폰서로 참여하였습니다.

- [원문보기](#)

SDGs 소식

1. [SDGs 12.6] UNGC-GRI, 기업을 위한 SDGs 공시 안내서 발간



지속 가능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투명하고 효과적인 보고가 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사의 지속가능성 향상 노력을 공유하는 지속가능보고서는 기업 및 기관에 있어 조직의 발전 촉진과 성과 향상에 기여하는 전략적인 도구로 진화하였습니다. KPMG가 201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50대 글로벌 기업의 92%가 자사의 지속가능성 활동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DGs 세부목표 12.6번에서도 '기업,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도입하고, 보고 체계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하도록 장려한다'라고 명시하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의 이점을 설명하고, 연례 지속가능보고서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SDGs에 관한 기업들의 진전과 영향력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공통의 기준이 부재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SDGs 이전에 결정된 보고 기준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SDGs 목표의 복잡함과 방대한 양은 세계 경제 활동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자사의 SDGs 기여 활동을 보고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기업의 공헌 및 성과 보고를 지원하는 안내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기업 공시: 목표 및 세부목표 분석(Business Reporting on the SDGs: An Analysis of the Goals and Targets)"를 발간하였습니다.

UNGC와 GRI가 개발하고, PwC가 지원한 동 보고서는 전세계 비즈니스 리더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각각의 SDG 목표와 세부목표를 분석하여 도출한 목표 별 달성 방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SDG 목표 별 달성 방안
- 공신력 있는 출처에 기반한 기업 공시 사례
- UNGC 연구자료, GRI 가이드라인 등 기업 보고에 활용 가능한 자료 리스트
- 유엔 및 관련 국제기구가 공동 개발한 SDG 보고 지표(IAEG-SDG indicators)

동 보고서는 기업이 자사의 SDGs 목표달성의 기여 정도를 보고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지표 구성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첫 시도로, 개별 기업에서 보유하는 유사 데이터를 집대성하여 각 데이터가 비교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본 리포트에 기술된 각 SDGs 목표별 기업 달성 방안은 자사가 SDG에 기여한 활동을 정부와 연계하고 보고하는 국가차원의 활동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동 보고서는 혁신과 전략적 리더십, 그리고 자본을 SDGs로 이끌며 글로벌 목표달성을 촉진할 것입니다.

한편, 유엔글로벌콤팩트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와 함께, ‘보고를 통한 SDG 리더십(Reporting on the SDGs)’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존의 기업 보고 프레임워크에 통합된 형태로서, 10대 원칙 및 SDGs에 관한 포괄적 보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9,500개 이상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들이 자사의 지속가능성 향상 노력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본 지침서의 후속 자료로 2018년 발간될 “우선순위 선정 및 이행 성과 공개에 대한 지침서(A Practical Guide to Defining Priorities and Reporting)”는 기업들이 SDG 목표를 자사의 우선순위에 맞춰 설정하고, 보고를 체계화하는 방법을 보다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기업 공시: 목표 및 세부목표 분석\(Business Reporting on the SDGs: An Analysis of the Goals and Targets\)’](#) 리포트 보기
- [‘보고를 통한 SDG 리더십\(Reporting on the SDGs\)’](#) 이니셔티브 보기

About this SDG Goal

[SDG 12.6]



SDGs 세부목표 12.6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활동 도입 및 정보 보고를 목표로 합니다. 유엔환경개발회의(1992)에서 채택한 의제 21은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으로,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여 기업 및 산업이 사회경제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코피아난 전(前)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경제포럼(1999)에서 인권, 노동, 환경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를 발족하였습니다.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WSSD, 2002)에서는 기업과 산업이 UNGC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양식을 위한 정책과 방법을 도입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와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에 따라 산업의 사회환경 성과를 개선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SDGs에서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회원사 뉴스

1. 서울시복지재단 근로자이사 임명

서울신문 인쇄 취소

서울시복지재단 장지현 근로자이사 임명

입력: 2017-10-23 17:51 | 수정: 2017-10-23 17:51

서울시복지재단은 근로자(노동자)이사에 장지현(43) 공공협력본부 과장이 임명됐다고 23일 밝혔다.

근로자 이사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다. 서울시 관련 조례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인 서울시 16개 투자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2017년 10월 23일 서울시복지재단은 새로운 근로자(노동자)이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함
-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근로자 이사제도에 따르면, 노동조합 혹은 종업원 대표는 근로자 경영 참여제도에 따라 근로자 대표로서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원문보기 \(서울신문\)](#)

2. 신한은행, 글로벌 사회공헌 지침서 'CSR GUIDE for GLOBAL SHINHAN' 발간

신한은행,글로벌 사회공헌 지침서 `CSR GUIDE for GLOBAL SHINHAN` 발간

기사입력 2017.10.24 14:36:58



신한은행은 글로벌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 `글로벌 CSR 가이드 북(CSR GUIDE for GLOBAL SHINHAN)`을 제작해 20개국 150개 글로벌네트워크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 2017년 10월 24일, 신한은행은 '글로벌 CSR 가이드 북(CSR GUIDE for GLOBAL SHINHAN)'을 출판해 20개국 150개 글로벌네트워크에 배포했다고 발표함
- 이 가이드 북은 글로벌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로서 신한은행이 향후 지속가능 사회공헌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함
- [원문보기 \(매일경제\)](#)

3. 롯데제과 '나눔국민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롯데제과 '나눔국민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입력시간 | 2017-10-20 11:42



롯데제과 최용수(왼쪽) 대표가 19일 KBS홀에서 열린 '2017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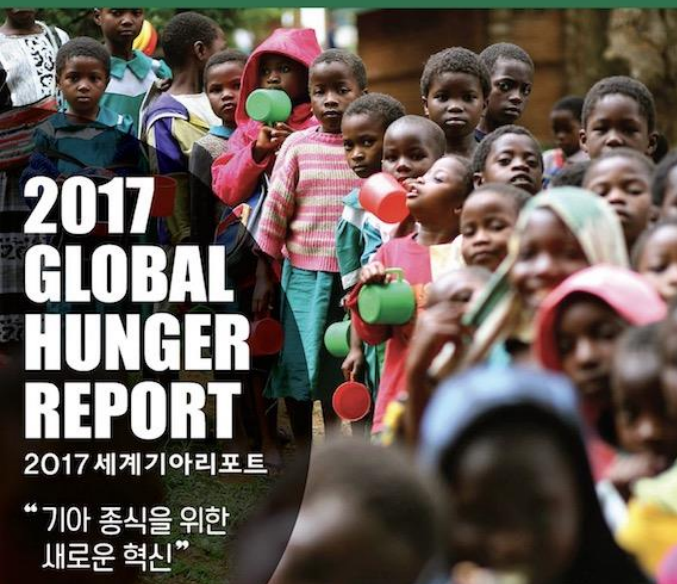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롯데제과는 '2017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나눔분야 최고의 상으로 2012년부터 시행하여 올해로 6년 째 맞고 있는 행사이다.

- 2017년 10월 19일 열린 '2017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롯데제과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함
- 이번 수상은 롯데제과가 그동안 제품의 판매 수익금으로 사회적 기부 활동을 해온 공로가 인정 받은 것임
- 특히 롯데제과는 2013년부터 세이브더칠드런과 협력하여 소외된 농촌지역에 지역아동센터인 '스위트홈'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음
- [원문보기 \(이데일리\)](#)

4. 컨선월드와이드, 2017 세계 기아 리포트 행사 개최

2017 세계기아리포트



2017 GLOBAL HUNGER REPORT

2017 세계기아리포트

“기아 종식을 위한 새로운 혁신”

CONCERN
worldwide
컨선월드와이드

2017 GLOBAL HUNGER REPORT

컨선월드와이드가
한국에서 최초로 '2017 세계기아리포트(Global Hunger Report)' 국제행사를 개최합니다.
기아는 단순히 영양실조의 문제가 아니라 분쟁, 재해, 빈곤, 차별 등 모든 문제의 복합적인 결과물입니다.
컨선은 2006년부터 세계기아지수를 발표해 기아종식을 위한 협력의 틀을 제공해 왔습니다.
올해는 한국에서 전 세계 기아와 빈곤의 현주소를 살피고 국제사회, 정부, 민간의 혁신적인 노력을 소개함으로써 함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 사 2017 세계기아리포트 (“기아종식을 위한 새로운 혁신”)

일 시 2017년 11월 14일 (화) 오후 1시 ~ 6시

장 소 KT스퀘어 드림홀 (서울 중로구 세종대로 178)

대 상 인도주의, 국제협력, 사회혁신 관계자 및 학생 200명 (선착순 / 무료)

신 청 11월 6일 (월)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사전 등록 (<http://bit.ly/2l6z6KJ>)

발 표 11월 7일 (화) 오후 5시, SMS 개별 통보

기 타 2017 세계기아지수 보고서 현장 제공

문 의 pr.korea@concern.net

PROGRAM

오프닝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p>도미닉 맥솔리 컨선월드와이드 CEO</p> <p>줄리안 클레이어 주한아일랜드대사</p> <p>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p>
세션 1 기아의 불평등	2017 세계 기아 현황과 과제	<p>이준모 컨선월드와이드 한국대표</p> <p>서정민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장</p>
세션 2 기아종식을 위한 새로운 혁신	유엔 WFP의 제로 헝거를 향한 혁신 구체적인 혁신의 현장과 증거	<p>임형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장</p> <p>올리브 토위 컨선월드와이드 세계기아지수 책임자</p>
좌장: 손혁상 경희대학교 광명대학원장	KOICA의 혁신사업 전략 및 사례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경영과 사례	<p>이남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사업실장</p> <p>임석환 CJ제일제당 CSV경영팀장</p>

* 발표 주제 및 연사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시통역 제공됩니다.

국제인도주의단체 컨선월드와이드는 전 세계 극빈층의 기아와 빈곤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컨선월드와이드는 1968년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내전 긴급구호를 시작으로 2016년말 현재 총 27개 국빈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긴급구호와 영양개입을 강점으로 하며, 현지 정부와 함께 평균 20년 이상의 중장기 개발협력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본부는 아일랜드에 위치해 있으며, 2015년 아시아 최초로 한국사무소를 설립했다. (홈페이지: <http://concern.or.kr>)

주최

후원

주한아일랜드대사관

파트너

[\[행사 신청 바로가기\]](#)

CSR 뉴스

1. [기 고] 나이키·리바이스·게스,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다



"나는 피츠버그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당선된 것이지, 파리 시민을 위해가 아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나는 우리 시민과 경제, 미래를 위해 파리 협약 지침을 따를 것이다. 피츠버그 시는 지난 대선에서 80%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다." (빌 페두토 피츠버그 시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피츠버그시(市)를 언급하자, 빌 페두토 피츠버그 시장은 이렇게 받아졌다. 페두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츠버그가 여전히 석탄과 철강에 의존하는 낙후된 지역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기후변화 협약을 이끄는 것은 '도시들'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얼마 전 그는 파리 시장과 <뉴욕타임스> 공동 기고를 통해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한 도시들의 전례 없는 연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도시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 파리협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두토 시장은 지난달 유엔총회 중 열린 UNGC(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에서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피츠버그의 도시재생 및 친환경 스마트시티로의 변화 노력을 피력했다. 기후변화 이슈뿐 아니라, 피츠버그시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설명했다. 물론 트럼프 정부의 반(反) 환경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피츠버그의 놀라운 변화와 페두토 시장의 노력에 70여 개국 기업인과 시민사회, 정부 및 유엔 관계자들은 기립 박수

로 지지를 보냈다. 필자도 그의 연설에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

미국의 대표적인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이었던 피츠버그는 철강산업의 침체와 함께 도시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높은 실업률로 청년은 도시를 떠났고, 대기오염도 심각했다. 시는 젊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역 대학들과 협력해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기업 유치에 힘썼다. 공장지대를 복합문화시설로 재정비하고, 강변을 개발해 공원을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 그 결과 구글, 우버와 같은 기업이 들어왔고, 지역 경제도 서서히 활기를 찾았다. 스모그로 어두웠던 도시가 이제는 1만여 명 이상의 주민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피츠버그는 지금 청정하고 깨끗한 도시로 변모해가고 있다.

유엔총회 기간 중 UNGC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세계자원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와 공동 발족한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의 발표에 따르면,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참여한 기업이 30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는 파리 협약 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간부문의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니셔티브는 참여기업이 2년간 온실가스의 '과학적 감축목표'를 책정하도록 돕고, 이후 전문가들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평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감축목표는 가치사슬 전반에서 고려되어 산업 전체에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공급사슬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올해만 90여 개사가 이니셔티브에 동참했고, 참여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미국 나스닥 증권거래소의 전체 시가총액에 달하는 약 6.5조 달러로 추정된다. 해당 기업들은 매년 7억5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이는 연간 1억5800만 개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같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니셔티브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35개국에서 제조, 전력, 소매, 생활용품, 기술, 화학, 의류, 서비스 및 금융 등 다양한 업계를 아우르고 있다,

특히 갭(Gap Inc.), 나이키(NIKE), 리바이스(Levi's), 게스(GUESS), 에일린 피셔(Eileen Fisher), VF코퍼레이션(VF Corporation) 등 유명 의류업체들이 과학적 감축목표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의류업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의 90% 이상이 가치사슬에서 배출되며, 대부분의 의류업체들이 동일 공급업체와 거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급사슬 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산업 전체의 협업과 효율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트럼프의 기후변화협약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감축목표를 설정한 기업 중에는 미국계 기업이 총 50개사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탄소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들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인식한 선도기업이기도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이 비용 감소, 투자 유치, 혁신, 불확실성 감소 등 사업의 여

러 측면에서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해 책임과 성장을 동시에 이뤄나가야 한다.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원문보기 \(프레시안\)](#)

2. 건설기술 용역 심사에도 '사회적 책임'평가한다



- 2017년 10월 24일, 조달청은 적격심사로 진행되는 건설기술 관련용역 입찰에서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의 이행여부에 따라 입찰 가감점을 도입하기 위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이는 공공조달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지원한다는 취지임
-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점 항목에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0.4점)',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0.2점)' 및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0.2점)' 등이 있음

- [원문보기 \(파이낸셜뉴스\)](#)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일자리창출·지역공헌도 중심으로 재편



'사회적 가치' 지표 신설해 배점 강화...주민이 직접 평가 참여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체계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재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평가 때부터 반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 2017년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체계를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평가 때부터 실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기존 지방공기업 평가 방식에는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음
-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경영평가 체계개편을 통해 지방공기업이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함

- [원문보기 \(연합뉴스\)](#)

4. 공정위, 미리 등록된 대기업·로펌 직원만 접촉 허용... '전관예우 근절' 준칙 도입

chosun.com 경제

경제 일반

공정위, 미리 등록된 대기업·로펌 직원만 접촉 허용... '전관예우 근절' 준칙 도입

안별 기자

입력 : 2017.10.24 1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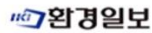
/연합뉴스

미리 등록된 대기업·로펌 관계자만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나왔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규제·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 방안이다.

- 2017년 10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등록된 대기업·로펌 관계자만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을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현재 대기업·로펌 관계자들이 공정위에 자주 드나들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는 탓에 공정위 퇴직자들이 공정위에 우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공정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인 출입 관리' 운영 규정을 올해 내로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민원인이 제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원문보기 \(조선일보\)](#)

5. 한국 12개 기업, CDP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평가 'Leadership A' 획득



HOME > 산업·노동·안전 > 산업·기술

한국 12개 기업, CDP 기후변화 대응·물 경영 평가 'Leadership A' 획득

CDP Climate Change(기후변화) 10개 기업 및 CDP Water(물 경영) 2개 기업 선정

한이삭 기자 승인 2017.10.26 10:09

Leadership A 획득 10개 기업 중

kt,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신한금융그룹, LG디스플레이
기후변화 대응 최우수 기업인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편입

[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 기후변화·물·산림자원 등 환경 관련한 전 세계 금융기관 주도의 정보공개 이니셔티브인 CDP 평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 10개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최고 단계인 Leadership A(리더십 A)를, 물 경영과 관련해서는 2개 기업이 Leadership A를 획득했다.

- CDP 는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에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주요 기업과 도시 등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금융활동에 반영하는 글로벌 정보공개프로젝트임
- 올해 CDP 에서 조사한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6,300 개 이상이며 CDP 의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Leadership A 를 받은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112 개뿐임
- CDP 한국위원회(사무국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는 기후변화 대응 평가인 CDP Climate Change 에서 KT,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신한금융그룹,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물산, LG 전자, 삼성전자, 현대글로벌비스가 최고 단계인 Leadership A 를 획득했고, 물 경영 정보공개프로젝트인 CDP Water 에서는 LG 이노텍과 삼성전자가 Leadership A 를 획득했다고 발표함
- [원문보기 \(환경일보\)](#)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10 월 17 일부터 11 월 2 일까지 UNGC 본부의 승인을 받아 UNGC 본부와 한국협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1 곳 입니다.

- (재)동천

2. COP/COE 제출회원

10 월 17 일부터 11 월 2 일까지 12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주)LG 생활건강
- 구미시청
- (주)나인
- 해양환경관리공단
- 한국공항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국제협력단 - 코이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 경기테크노파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 년 연회비 납부 안내

※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와 한국협회에 동시 가입한 회원들은 한국협회에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으며, 연회비는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치확산에 사용됩니다.

▪ 2017 년 4/4 분기 연회비 납부 회원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삼덕통상, 기아자동차, 서울시복지재단,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유엔한국협회,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 LG생활건강, DGB금융지주, 일성건설주식회사, 울산항만공사, 세일인터넷소날, 씨엔커뮤니케이션, 씨엔엠브이엔오, 푸른나무청예단, 한국투명성기구,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진해장애인복지관, 에쓰오일,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티비에이치글로벌, 한국언론진흥재단,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 4/4 분기 납부기한: 2017 년 11 월 30 일까지

청구서 재발행을 원하시면 협회 사무처로 연락 바랍니다.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글로벌콤팩트 가입자와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와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연간 기부를 통해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COP 또는 COE 가 Active 상태인 회원사에 한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20 대일빌딩 15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소 완 연구원